

남학생 가정형 Wee센터 이설 추진

전남도교육청, 20여 명 참석 주민설명회 개최

전남도교육청이 현재 순천 도심에 있는 남학생 가정형 Wee센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이설을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순천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남학생 가정형 Wee센터 이설과 관련, 6일 오전 순천시 상사면 쌍지리 주민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가정형 Wee센터는 학대·방임·이혼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과 교육·심리 상담 제공을 통해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원가정 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2015년 7월 중·고등학생 남학생을 위탁할 수 있

는 가정형 Wee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대건물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로 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후보지인 순천시 상사초등학교 쌍지분교는 2010년 폐교됐으며, 순천시내에서 자동차로 20여 분 거리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천혜의 수자원인 상사호 인근에 위치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폐교 활용으로 마을 환경 개선과 학생들로 인해 활기찬 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마을 주민들은 위탁하는 학생 대상과 교육프로그램, 공간활용, 운영 기간 등에 대해



공급해줬으며, "어려운 학생들 지원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순천교육지원청 이길훈 교육장과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도 함께 참석해 "농번기 봉사활동과 텃밭 가꾸기 등의 자연친화적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축제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주민과의 유대관

계가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에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전남교육청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기관 뿐 아니라 마을이 함께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처음학교로' 활용 연수

광주시교육청이 2020학년도 유아모집·선발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활용 연수를 6일 광주시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였다.

이 자리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 관내 공·사립유치원 교원과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으로 원서접수, 추첨, 선발, 등록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유아에게 공정한 입학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편의 제공 및 교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2018년 전국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학부모 및 교원의 정

보 접근성 및 활용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날 연수는 처음학교로 유치원/학부모 서비스 소개, 유아모집/선발 프로세스 및 시스템 이용 방법 등 교원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케리스)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광주시교육청 채미숙장학관은 "지난해 우리시교육청 산하 공·사립유치원 302개원 중 298개원이 참여하여 98.7%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2019년에는 조례도 제정됨에 따라 전체 공립유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원, 학부모가 시스템 사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연수 실시, 권역별 컨설팅, 공시립 멘토링제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공공도서관, 성인문해(한글)교육 학습자 대상 건강강좌 성료

영광공공도서관은 지난 6일 성인문해(한글)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유용권 교수(전남도립대학교 경찰경호과)를 초빙하여 '건강하게 걷는 100세 만들기'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평균연령이 72세인 점을 고려하여 건강관리를 통한 학습의욕 고취 및 교과 공부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강연을 들은 강명순님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운동을 배우니 더 좋다."면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장혜란 도서관장은 "성인문해교

육의 교양강좌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특강이 어르신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의 특강을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공공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어린이 인형극 공연(9.20~9.21)과 김선영(열흘간의 낚선 바람 저자) 작가의 강연(9.25) 등 다양한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공공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61-353-269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순천대, 상반기 신규 연구과제 19개 선정

순천대학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과 학술·인문사회사업 등에서 2019년 상반기 신규 연구과제로 19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및 학술·인문사회사업은 대학 연구기반 구축, 학문 균형발전 및 후속

세대 양성을 통해 국가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의 국가 연구개발 성과 제고와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순천대는 이번 상반기에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에서 △학문균형발전지원(10개) △기초연구(3개) △신진연구지원(2개) △생애 첫 연구(1개) 등 16개 과제와 원

천기술개발사업에서 나노·소재 기술개발 1개 과제, 학술·인문사회사업에서 인문사회기초연구 2개 과제 등 총 19개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순천대 연구책임자들은 향후 신청 과제별 1~4년 간 총 27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내이 오가노이드 및 내이 재생법 개발연구, 난류 연소속도 증대에 관한 연구, 자동차용 초고강도 도금강재의 수소침투모델 설계

및 부식유기 수소취화 저항성 향상기술 개발 연구 등 기초연구사업 및 학술·인문사회사업을 수행한다.

허재선 산학협력단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연계기술개발 과제 발굴과 기획 지원을 통해 대학 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통해 전남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팝페라 콘서트 & 청렴특강

광주시교육청, 전 직원 대상 '청렴문화연수' 실시



광주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

난 6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19년 청렴문화연수(청렴 팝페라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기존의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재미와 흥미를 더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중적인 팝(Pop)과 오페라(Opera)가 접목된 장르의 팝페라 콘서트 형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연수 과정은 팝페라 가수들이 깜짝 등장하여 익숙한 노래로 수준 높은 공연과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강연자가 다양한 청렴 자료를 바탕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색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오승현 광주시부교육감은 "이번 연수가 교직원들에게 청렴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모두가 청렴문화운동에 동참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보다 많은 공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연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인호 기자

